V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제언

국내에서 재해의 증가와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중단 위험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공급사슬과 지역의 경제·고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핵심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연속성계획(BCP)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적 및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험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은 단순히 기업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고객 및 기업과 연관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에 영향을 미쳐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효과적인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재해 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긴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경우 기업들의 사업연속성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개별기업의 관리영역으로 남겨 두기보다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국가의 사업연속성관리 정책과 연계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와 보험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은 사업연속성계획의 활발한 수행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본 장은 이전 장에서 논의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중소기업, 보험회사의 측면으로 나누어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국내에서는 2007년에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제정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벤처부 같은 정부 기관들이 사업연속성계획 기본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 수립을 지원해 왔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연속성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낮은 인식과 사업연속성계획의 수립에 수반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재난·재해 등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주요국들은 정부기관과 각 업종의 협회 등 단체가 특정 산업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가 대학과 공동으로 방재 및 감재 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연속성계획에 대한 인재 육성과 기업의 개별상담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정부기관 및 협회에서 산업과 업무의 분야별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유형의 사업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개발하는 동시에 미국의 긴급사태관리 연구소(EMI)와 같은 전국 수준의 위기관리 교육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거나 훈련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 수립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연속성계획 우수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이자 대출, 신용보증 범위 확대 등의 금융 지원, 방재·감재 설비에 대한 세제 혜택, 보조금의 우선 지급 등과 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원조치 등을 활발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의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요구에 부응하는 대출 조건을 설정하고 사업연속성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중소기업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연속성계획을 제고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연속성계획 인증제도를 보다 활발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를 통하여 단순히 사업연속성계획의 수립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훈련의 실시 여부와 훈련 결과에 근거한 개선 활동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사업연속성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연속성계획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연속성계획의 유용성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사업연속성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 동 계획이 중소기업의 기업가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이해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관리에서 기업휴지보험과 같은 보험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정부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세제지원(제21조), 자금지원 우대(제22조), 재해경감 설비자금(제23조)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관리 우수기업을 평가함에 있어 기업휴지보험의 가입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중소기업

지금까지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위험관리의 영역을 재물, 배상책임손해, 인적사고 등에 국한하고 있어 사업연속성계획을 통한 영업중단 위험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재난과 재해에 대한 사업연속성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은 예상치 못한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영업중단 위험을 자사에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인해 사업중단이 발생할 경우 자사의 사업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대기업에 비해 인적·물적 지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 수립에 가장 큰 장애물은 이에 수반되는 비용이다. 그러나 비상사태 발생 시 사업연속성계획의 부재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막대한 손실을 고려하면 사업연속성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장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은 사업연속성계획을 기업의 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사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사의 업종·규모·방침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사업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대로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자사의 사업 특징,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자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이고 적절한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은 사업연속성계획의 효과적인 수행을 통한 위기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기적 훈련 시행을 통해 사업연속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자사의 사업연속성계획의 매뉴얼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인 훈련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연속성계획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연속성계획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동 계획의 실행이 기업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담이 된다면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자사의 핵심 사업의 지속을 위한 중요한 내용만을 포함하여 사업연속성계획의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가급적 간결하게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업연속성계획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중요업무 담당자뿐 아니라 기업의 모든 구성원이 동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임직원에 대해 사업연속성계획의 필요성과 유용성 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보험회사

중소기업 사업연속성의 강화에 있어서 보험은 위험과 손실의 발생빈도를 줄이거나 발생했을 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재무적 위험(Risk finance)관리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일본손해보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사업중단으로부터의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64] Asai(2019)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산 위기에 놓인 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일수록 보험을 구입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다.[65] 家森信·浅井義裕(2016)은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사고의 영향이 더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66] 또한 Geneva Association(2021)의 조사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복구에 있어 기업휴지보험이 예상대로 제대로 작동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보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

64) 日本損害保険協会(2021)
65) Asai(2019)
66) 家森信·浅井義裕(2016)

들이 기업휴지보험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소기업이 사전에 기업휴지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의 가입을 통해 사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V-1〉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설문조사

(단위: %)

분류	지원내용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기업휴지보험이 예상대로 작동했습니까?	작동함	62	59	81	91	100
	작동하지 않음	38	41	19	9	0
팬데믹 이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기업휴지보험	58	68	63	54	35
	배상책임보험	37	55	54	39	32
	상업용 재산보험	30	54	53	33	36
	신용보험	35	58	50	26	37
	상업용 사이버보험	37	50	53	35	37

자료: Geneva Association(2021)

현재 국내에서 보험을 통한 영업중단 위험관리는 보험이 안전망 구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재난·재해로 인한 위험은 드물게 일어날 수 있지만 발생할 경우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기업휴지보험은 다양한 상품의 부재, 높은 보험료 수준, 상품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등의 요인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관리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들은 영업중단 위험관리와 관련한 기업휴지보험의 신상품 개발이나 가입률의 향상을 위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험회사들은 기업의 업종, 규모 등을 반영한 각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영업중단 위험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는 중소기업의 사전 사업연속성계획의 수립여부와 실행 상황을 근거로 한 차별적인 보험료 설정, 전 위험담보(All Risk) 보장형 상품과 실손보상형 상품 같은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휴지보험은 기업보험 중 가장 복잡한 상품 중 하나이므로 보험회사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근

거한 정확한 보험금액, 적절한 보상기간 산출방법 및 보상내용에 대해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영국의 사례와 같이 기업휴지보험계산기(BI Calcualtor)를 자사 홈페이지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사의 영업중단 위험을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해외 주요국의 보험회사들은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독자적인 사업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및 템플릿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및 템플릿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재해 대응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을 위한 컨설팅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회사들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정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연속성계획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사업연속성계획 지원 정책과 연계된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중소기업 사업연속성계획의 성공적 구축 및 실행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